

저장된 페이지 보기

아이칸-프랭클린 KT&G 공격 손잡나

[매일경제] 2006-01-31 3038자

KT&G 지분 6.59%를 확보한 칼 아이칸측이 미국 타임워너사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KT &G 최대주주(지분율 7.3%)인 프랭클린유추얼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이칸측이 KT&G 지분 확대 과정에서 리히텐슈타인을 끌어모은 데 이어 프랭클린유추얼과도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다.

프랭클린유추얼은 현재 KT&G 지분 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따라서 두 세력이 연합하면 지분율은 13.89%로 확대될 수 있다. 기업은행(5.85%)과 우리사주조합(6.1%)의 KT&G 지분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다. 이 밖에 KT&G 자사주가 9.6%에 달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7일 KT&G에 따르면 칼 아이칸은 프랭클린유추얼, 자나파트너스, SAC캐피탈 등 3개사와 연합해 타임워너사에 회사 분리,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칼 아이칸은 프랭클린유추얼과 전략적인 투자자 관계로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랭클린유추얼과 특수관계인으로서 KT&G 지분 0.4%를 보유한 템플턴자산운용은 지난 2004년 SK 주주총회에서 소버린측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KT&G 관계자는 "템플턴유추얼은 지금껏 현 KT&G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는 뜻을 공시한 상태"라며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최종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칸파트너스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KT&G에 투자한 미국계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는 이번 '아이칸 연합'의 핵심이다.

특히 스틸파트너스의 워런 리히텐슈타인 회장은 지난해 9월께 직접 KT&G 방문을 추진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파트너스는 아이칸측과 협의해 KT&G 사외이사 후보로 리히텐슈타인 등 3명을 제시하면서 집중투표제 방식을 요구했다. 다만 아이칸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후보 중 하버드 로버는 미국 담배업체인 벅스그룹 최고경영자여서, 경쟁업체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스틸파트너스의 투자전략은 기업이나 주식을 저가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아이칸과 달리 공개매수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에서는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자사주 매입, 고배당 등을 요구한 헤지펀드로 전해졌다.

KT&G에 따르면 스틸파트너스는 현재 일본에서 샤프로홀딩스(17.59%) 등 6개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칼 아이칸이 과연 외국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7일 KT&G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KT&G 주가는 전날보다 6.53% 하락한 5만3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216억원, 109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아이칸과 KT&G간 경영권 분쟁이 '실현성' 여부를 놓고 '제2 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아이칸의 KT&G 지분 매입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내외 증권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7일 아이칸의 경영참여 선언이 KT&G 주가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과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